하나님의 건축

핵심 구절: “다른 기초를 세울 수 없으니, 이미
세워진 기초 외에는 없으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고린도전서 3:11

선정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3:9-17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구조적으로 튼튼하더라도, 적절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고, 바닥과 벽이 휘어지며, 지붕이 처지고,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기술로 지어진 위풍당당한 기념비는 사용

불가능한 폐허가 되어 버려진 눈엣가시가 되며,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기초, 수평이고 직각이며, 세대를 거쳐 그 위에 세워진 것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바로 그런 확실하고 영원한 기초가 우리에게 마련되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구조를 세우기 위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 핵심 구절에서 말하듯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림을 더 확대하여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쓰면서, 주님의 헌신된 자녀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견고한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을 쌓아 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고린도전서 3:9

이 비유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기록한 다른 말씀으로 설명됩니다. (고린도후서 5:17)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그분에 대해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차지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아담과 그를 통해 정죄받은 인류의 잃어버린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로마서 5:18, 19; 디모데전서 2:5, 6). 이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의 기초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함이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살아 있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 고린도후서 5:14,15

우리 수업의 맥락에서 바울은 이 일을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 은, 보석”으로 쌓는 일에 비유합니다. 이는 그의 말씀에 담긴 귀중한 진리와 약속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3:12)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으니, ...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 에베소서 2:10

기독교 성장의 필수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육적인, 즉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시적인 인간 지도자들에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 고린도전서 3:1-4

여기서 기초 위에 어떻게 건축하는지가 중요함이 강조됩니다. 사도는 일부 사람들이 “나무, 짚, 짚단”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건축하고 있다고

암시합니다. 이는 육의 영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12-15절). 바울은 기독교인의 건축 작업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지도권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이며 아볼로는 누구이겠는가? 너희가 믿게 한 종들일 뿐이다. ...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느니라.” – 고린도전서 3:5,6